

빅히트 (352820)

박성호 02-3770-5657

Forecasts and valuations (K-IFRS 연결) (단위: 억원, 원, %, 배)

| 결산 (12월) | 2018A | 2019A | 2020F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매출액 | 3,014 | 5,872 | 6,790 |
| 영업이익 | 799 | 987 | 1,340 |
| 지배순이익 | -705 | 738 | 888 |
| PER | - | - | 76.4 |
| PBR | - | - | 6.7 |
| EV/EBITDA | - | - | 38.1 |
| ROE | - | 56.5 | 15.0 |

주: 영업이익=매출총이익-판매비, 자료: 유안타증권

- ▶ 2021E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 2,277억원, 컨센서스 2,053억원으로 기존 엔터 3사 합산 영업이익 대비 35% 가량 높은 수준. 기존 엔터사 대비 Multiple Gap이 컸고 기존 주주들의 매물 출회가 집중되면서 상장 2일간 주가 급락세
- ▶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온라인 콘서트를 비롯한 디지털 대응전략이 가장 뛰어난 음악 제작사. 팬덤의 수익화 모델이 글로벌 음악시장 → 콘텐츠/커머스(MD)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어 기존 엔터사 및 미국 워너뮤직 대비 Mutiple 확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
- ▶ 방탄소년단 군입대에 따른 매출공백 리스크는 솔로/유닛 활동의 병행 통해 극복 가능

와이지엔터테인먼트 (122870)

박성호 02-3770-5657

Forecasts and valuations (K-IFRS 연결) (단위: 억원, 원, %, 배)

| 결산 (12월) | 2018A | 2019A | 2020F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매출액 | 2,690 | 2,645 | 2,495 |
| 영업이익 | 198 | 9 | 85 |
| 지배순이익 | 178 | -215 | 125 |
| PER | 38.5 | -28.1 | 68.7 |
| PBR | 1.9 | 1.7 | 2.4 |
| EV/EBITDA | 19.8 | 30.4 | 33.8 |
| ROE | 5.1 | -6.2 | 3.6 |

주: 영업이익=매출총이익-판매비, 자료: 유안타증권

- ▶ 4Q20 블랙핑크 앨범 글로벌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하고 유튜브 채널구독자수가 5,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전사 수익성 개선을 위한 발판 마련
- ▶ 신인 보이그룹 트레저는 앨범당 20만장 이상의 판매량 시현 중. 유튜브/V Live를 통한 팬덤 구축기. 아이콘/위너를 대체하는 주력 아티스트로 성장 기대
- ▶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빅뱅 컴백(해외활동 중심 예상)이 지연되고 있는 점은 2021E 실적에 리스크로 작용

스튜디오드래곤 (253450)

박성호 02-3770-5657

Forecasts and valuations (K-IFRS 연결) (단위: 억원, 원, %, 배)

| 결산 (12월) | 2018A | 2019A | 2020F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매출액 | 3,796 | 4,687 | 5,333 |
| 영업이익 | 399 | 287 | 522 |
| 지배순이익 | 358 | 264 | 414 |
| PER | 75.9 | 82.9 | 58.0 |
| PBR | 6.8 | 5.1 | 5.1 |
| EV/EBITDA | 20.7 | 14.7 | 12.7 |
| ROE | 9.3 | 6.4 | 9.2 |

- ▶ 아이치이의 글로벌 OTT 서비스 개시로 인해, 한국 드라마 제작사 1위인 스튜디오드래곤 수혜 기대. 스튜디오드래곤은 캡티브 채널에 공급하는 연간 드라마 약 30편 중에서 7~8편을 넷플릭스에 최고가(제작비 대비)로 공급 중. 2021년부터 아이치이도 드래곤 작품의 일부를 최고가 수준으로 구매 예상
- ▶ 상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2020년 9월, “시진핑, 코로나19 안정되면 한국 가장 먼저 찾을 것”이라 언급. 한한령 해체에 대한 기대감 형성 가능 시기로 판단

•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. •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•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•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•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,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.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,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 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,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한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 또한,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, 전송, 인용,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.